

# 미국만이 아니다...서구권 전반 퍼진 反아시아인 '증오범죄'

### 유럽 이전부터 '암적 존재' 인식 코로나19 사태가 기름 부어 급증 런던, 지난해 건수 전년비 95% 증가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아시아계 6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넘어 서구사회 전반에 퍼진 반(反)아시아계 정서 및 증오범죄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일상 속 증오범죄를 겪은 아시아계 목소리를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 런던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동아시아계에 가해진 증오범죄는 222건으로 제작년 동기(113건)보다 95% 증가했고 2018년(105건)에 견줘선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작년 6월 영국 내 소수 인종 12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중국계 3분의 1 이상이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고 답했다. 또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중국계 호주인 104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7%가 최근 1년 사이 중국계여서 차별적 또는 비우호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린 적 있다는 응답자는 31%였고 물리적 공격이나 위협을 받았던 응답자는 18%였다.

반아시아계 증오범죄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작년에만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제작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국민 2.9%가 증오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제작년 파리에서만 이틀에 한 번꼴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추산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가 반아시아계 증오범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맞다. CNN은 "일부 서구 정치인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중국의 연관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반중국 발언을 늘렸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계와 남동아시아계가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활동가들은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아시아계가 털어놓는 경험들은 증오범죄가 일

상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서 유학 중인 싱가포르인 케이 령은 길에서 꽃을 사달라는 상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거리에서 더 많은 눈초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모욕이 새롭지는 않다"라면서 "2016년 런던에 유학 온 이후 늘 마주했다"라고 말했다.

중국계 미국인 토마스 시우는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증오범죄를 겪었다. 그는 작년 3월 남성 2명이 코로나19 관련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자 이전에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었던 터라 소리치며 맞았다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당했다. 시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인종차별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중국계 평양은 지난 2월 동네에서 달리기하던 중 자신에게 '중국 바이러스' 등 인종적인 모욕을 가한 남성 4명에게 항의했다고 폭행당했다고 CNN에 밝혔다.

그는 "가해자들이 나를 동물처럼 대했는데 그들이 한 짓은 문명이 아니며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져서 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태극기 들고...뉴욕 증오범죄 규탄 시위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태평양계(AAPI)를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동양인 대상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램지어 성토'에 세계학자들 연대...국제학술대회 열린다

### 한중일서 아르헨 학자까지 참여

### 중전문가 쭈즈량 교수 주도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자유 계약' 관점에서 접근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학계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한중일 3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뜻을 모아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국제 학술 회의를 열기로 했다.

램지어 교수의 도발적 논문이 학계에서 큰 역풍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각자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러 나라 학자들 간에 긴밀한 연대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8일 상하이사범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사실과 진상에 관한 국제 연구토론회'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문해정 센터 초빙 연구원(한국), 천리페이 상하이사범대 교수(중국), 이시다 다카시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살바도르대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마리아 델 필라르 알바레스 교수(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자들은 인터넷 화상 연결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다.

중국의 위안부 문제 연구 권위자인 쭈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램지어 교수가 공개한 논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쭈 교수와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 위안부 문제



미 마이애미비치 야간통금 위반자 체포 20일(현지시간) 경찰이 야간통금 위반자를 체포하고 있다. 마이애미비치(市)는 봉방학을 맞아 휴양객이 몰려들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금 위반자를 체포하고 있다. 마이애미비치(市)는 봉방학을 맞아 휴양객이 몰려들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금 위반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로 손꼽히는 쭈 교수는 '상상과 추측으로 쌓은 램지어의 논문'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을 정면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이시다 연구원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지성주의의 발호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학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다. 문 연구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 동향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센터 소장인 쭈 교수의 주도로 준비됐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일본 우익 관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램지어)의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그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게 하려하기에 우리는 계속 램지어 교수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일본 수도권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 해제

### 25일부터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 하루 확진자 1천명대...재확산 우려

일본 수도권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22일 0시부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8일 발령된 이후 73일 동안 유지됐던 일본의 긴급사태가 모두 풀리게 됐다.

이날부터 긴급사태가 해제된 곳은 도쿄도,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 영업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로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수도권에선 지금까지 행사장 정원의 50% 혹은 5000명 중 적은 쪽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 정원의 50% 이내라면 1만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 해제를 강행한 것은 오는 25일 시작되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해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5차 회의를 갖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때 해외의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일본 국민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과 해외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린다. /연합뉴스

## 미얀마 군부 가족 겨냥 '사회적 처벌 운동' 확산

### 비즈니스 보이콧에 대학·직장 압박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해 온-오프라인 시민불복종 운동에 이어 군부 가족을 겨냥한 '사회적 처벌'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22일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후 지난주까지 247명의 시민이 군경의 총격 또는 폭력에 숨지고, 2345명이 체포됐다.

이에 시민들은 군부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이콧하고, 장군 자녀·친인척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처벌'(Social Punish-

ment) 운동에 나섰다.

미얀마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아들 아웅 배 손(36)과 딸 킨 피리 뎃 문(39)이 최우선 '사회적 처벌'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은 양군의 인민공원 안에 고급 레스토랑과 갤러리,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개회사, 해변가 대형 리조트, 건설회사, 무역회사 등을 운영하고 말은 유명 미디어 제작사(Seventh Sense)를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 리스트를 작성해 보이콧에 나섰다. 연예인들도 해당 제작사와는 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